

불법 건축물 허위 원상복구 무더기 적발

남약신도시, 눈 감아준 공무원 등 18명 입건 방 쪼개기·주차장 불법 임대 영업 등 관행화

남약신도시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0일자 6면>과 관련,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뒤 허위로 원상복구명령서를 제출했던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상당수 건물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시정하기는 커녕, 허위로 원상복구한 사진을 제출하는 등 '위장'하는가 하면, 관리해야할 행정기관도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상당수

건축사들을 적발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경찰은 12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 등을 시행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물주 A(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무안군 삼합읍 남약신도시 내 4층짜리 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

해 허가받은 것과 달리 방 면적을 쪼개 세 대수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차장 공간에 컨테이너·차단벽을 설치해 영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임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앞서 비슷한 사례로 건축사 100여명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뒤에도 개선하기는 커녕, 마치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처럼 허위 사진을 찍어 단속기관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울러 현장 확인도 없이 건물주가 보내준 허위 사진을 첨부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로 무안군 소속 공무원 B(48)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위법 건축물을 기간 내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개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물주들은 상당한 특혜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속 기관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상당수 화재 예방시설 등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입주자들도 전세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 및 관련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해질녘 17:28

달돋이 23:08
달질 12:06

오늘은 수능 치르는 날

중국북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7	보성	구름많음	1/7
목포	비/눈온후맑	3/8	순천	구름많음	2/9
여수	구름많음	3/8	영광	비/눈온후맑	3/6
나주	구름많음	1/7	진도	비/눈온후맑	4/8
완도	구름많음	5/8	전주	구름많음	1/7
구례	구름많음	1/7	군산	구름많음	0/6
강진	구름많음	3/8	남원	구름많음	-1/6
해남	비/눈온후맑	3/8	흑산도	비/눈온후맑	6/8
장성	구름많음	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파고(m) 2.0~3.0	파고(m) 1.0~2.0
남해	파고(m) 2.0~4.0	파고(m) 2.0~4.0
남해	파고(m) 1.0~2.0	파고(m) 0.5~1.5
서해	파고(m) 2.0~4.0	파고(m) 2.0~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0	05:47
	23:57	18:32
여수	밀물	썰물
	06:24	00:14
	19:13	13:04

◇주간 날씨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4/12	4/14	5/15	9/12	6/14	3/15	3/16

◇생활지수

	식중독	32
	운동	0
	빨래	20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국가 배상판결 불복 상고

국가가 강제 낙태·단종으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상고했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상고기간이 끝나는 날로, 국가의 상고 방침에 따라 한센인 피해자들의 지리한 소송전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원고들의 소송을 도운 '한센 인권 변호단'은 항소심 재판 뒤 성명을 내고 국가의 상고 포기 및 사죄와 일괄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2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이 떠나 가네

12일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행인들이 노랗게 물든 광주시 남구 대남로 가로수 길을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갑서 마네킹 머리까지 다양...법인택시조합 분실신고 1248건 습득신고는 8건뿐

을 들어 대중교통 홈페이지 분실물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각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는 ▲버스 371건 ▲택시 1987건 ▲지하철 37건 등 총 2395건의 분실 신고 글이 올랐다.

광주시 버스운영정보 안내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7년부터 12일 현재까지 승객, 기사가 발견해서 넘긴 물건 2634개가 등록돼있다. 분실물 종류별로는 지갑, 휴대전화, 교통카드 등이 많았다. 그외 마네킹 머리, 간호사복, 도시락 등 다양한 분실물이 접수됐다. 가장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분실물은 홈페이지를 게시한 지난 2007년 3월 26일에 등록된 지갑이었다.

대중교통 분실물 담당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차

광주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살펴보니

버스·지하철·택시 올 분실신고 2395건 3개월 이내에 찾지 못하면 소유권 잃어

안에서 잠들어 목격자에 다들 때 급하게 하차하느라 분실물이 생긴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분실한 승객 대부분은 운수회사에 직접 전화한 뒤 종점까지 기사를 찾아가 물건을 찾는다.

지하철의 경우 소관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분실물센터에 일주일 동안 보관해도 물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

으면 경찰서로 이관한 뒤 2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경찰은 1년간 물품을 보관한다. 유실물법상 3개월 이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

광주법인택시 사업조합 분실물 센터에는 스마트폰, 지갑 등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신고가 올해만 1248건 올라왔다. 하지만, 택시운전기사가 차에서 습득했다고 신고한 물건은 8개뿐이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올해 739건의 분실 신고 글이 올라왔지만 지난해 9월부터 습득 안내게시판은 운영이 멈춰있는 상태다.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차량번호와 하차 시간을 기억하고 즉시 분실물센터나 역무실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기온 뚝...수험생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광주·전남 아침 1~4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광주·전남지역은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을 동반한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의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6~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이는 평년보다 4~6도가량 낮은 수치다.

기상청은 또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광주·전남지역의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11~13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주말인 15일·16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기온 5~7도, 최고 기온 12~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가장 추웠던 수능 일은 지난 2001년 0.6도, 2005년 1.1도, 2010년 1.9도 순으로 나타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화점·마트 판매직 '감정 노동' 인권 침해 심각

광주여성민우회 인간적 노동환경 만들기 캠페인

백화점·마트·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정 노동' 인권 실태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행태에도 과도한 친절과 인사, 미소 등을 강요받는 서비스·판매직의 말 못할 시름이 깊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3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인근에서 '서비스·판매직 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연다.

광주여성민우회가 광주의 한 백화점의 류매장 3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든 직원

이 평상시 손님이 없어도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 2~3대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투명한 간척법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직원은 화장실과 승강기조차 고객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직원 1명만 근무하는 매장에서는 점심시간이나 물 마실 휴식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말 특수에 빼빼로데이, 수능까지 겹쳐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다.

/백희준기자 bhj@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전남대학교병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연산 100%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런칭 기념 2+1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U

강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